

흥청망청 'NO'... 문화 송년회 'YES'

직장생활 5년차인 김모(28·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해마다 일식 집에서 회사 송년모임을 가졌지만 올해는 극장 송년회로 바꿨다.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 1인당 5만원 정도의 회비가 부담스러워 영화 보고 간단히 호프집에서 한잔하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연말 송년모임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연말 술자리 대신 영화·연극관람으로 송년회를 대체하거나 술자리 규모를 축소하는 단체와 기업이 늘고 있다.

◇공연장·극장 불바 = 광주지역 극장가와 티켓마루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말 단체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은 크리스마스(25일)를 전후해 '난타'와 '소리관' 공연을 앞두고 단체 예약률이 지난해에 비해 10~20% 증가했다.

불황에 영화·공연 관람 늘고 호텔·식당 등 예약 줄어 울상

송년회 대신 극장가를 찾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다. S보험 직원 400명은 연말 단체관람을 예약했다. 광주시 서구청 전 직원도 2년 연속과 별 송년회 대신 영화를 관람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한 극장 관계자는 "평일 600명~1천명, 주말 1천500~2천명 가량 관람객이 있는데, 이달 들어 송년모임을 대신해 극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부쩍 늘었다"며 "아직 월초여사 상황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예약률 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 20~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식당·술집 예약 '뚝' = 반면 연말 특수를 노리던 호텔·식당·술집의 예약은 크게 떨어졌다. 9일 현재 광주 M호텔의 연말 단체손님 예약 건수는 20건. 이는 전년 동기 30건 대비 30% 정도 줄어 들었다.

광주시 북구 S한정식집은 현재까지 예약된 연말 단체손님이 불과 10여팀에 불과하다.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든 것이다. 대형호프집인 광주시 북구 B호프집과 서구 W호프집의 단체 예약 건수도 5~6건에 불과하다.

S한정식집 주인은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며 "연말 장사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다. 단체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손님 유치에 '혼신' = 계속된 경기침체 속에 불황을 맞는 업체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할인행사 등을 여는 등 '손님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은 이달 한 달 동안 호텔내 레스토랑과 일식당을 찾는 손님들중 객실 투숙객에게는 50% 이상을, 일반 손님에게는 10%씩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대형 뷔페인 '엘리샤'도 연말연시를 맞아 단체 예약 손님이 찾을 경우 축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케이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B호프집도 10인 이상 단체 손님을 대상으로 당일 특별 안주를 선정, 모든 단체 손님들에게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이종형기자 golee@

“공문에 나온 ‘적극 활용’이라는 단어는 교과부로부터 내려오는 교수 학습 자료를 일선 학교에 전달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며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4개 5·18 관련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상 유래 없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교과부는 물론이고 현 정권의 역사관식이 편향되고 왜곡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삼밭 凍害 예방을 겨울 잦은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예보된 가운데 9일 오후 영암군 시종면 월릉리 농민들이 인삼 모종밭의 동해(凍害)를 막기 위해 짚더미를 덮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편향 영상물 적극 활용하라니”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공문에 전교조 등 잇단 비난

4·19를 '데모'로 폄하하고, 5·18 민주화운동이나 6·15 남북정상회담을 신지도 않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고교용 홍보영상물이 광주·전남지역 학교에도 11월 초 일제히 배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고교에, 광주 동·서부교육청은 관할 초·중학교에 '교과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교육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영상자료를 제작 배부했

기에 교과 및 재량활동 시간에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띄웠다. 각 학교당 영상물 DVD가 한 장씩 배부됐다. 전남도교육청도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의 본거지이자 민주주의 성지로 불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부교재라고는 하지만, 현대사 왜곡의 소지가 큰 교재를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일선 학교로 보

내 '적극 활용'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9일 논평을 통해 "시교육청은 교과부 자료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공문을 시달렸다"며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우리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당국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에 나온 ‘적극 활용’이라는 단어는 교과부로부터 내려오는 교수 학습 자료를 일선 학교에 전달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며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5·18 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4개 5·18 관련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상 유래 없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교과부는 물론이고 현 정권의 역사관식이 편향되고 왜곡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강진서 교통사고 2명 사망

담임교사 자료철서 CD 빼내 초등생 4명이 시험문제 유포

'나주 시험지 유출'

지난 2일 처리된 전남도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본보 9일자 7면)과 관련, 전남도교육청은 나주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담임교사의 자료철에서 시험

문제가 담긴 CD를 입수해 유포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시험문제가 유출된 나주지역 두 초등학교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나주 모초교 6학년 학생 4명이 담임교사 자료철에서 시험문제가 담긴 CD를

입수해 이를 학습지 공부방에서 유포했다고 인정했다"며 "아직 진상을 조사중이지만 담임교사는 시험문제 유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담임교사인 K씨 등 관련자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도감독 소홀을 물어 문책할 예정이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보안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연루된 나주 지역 두 초등학교는 지난 6일과 8일 재시험을 실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9일 오후 2시30분께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교차로에서 '부산 90가 × × ×호' 4.5트럭(운전자 이모·30·부산시 서구)과 '59무 52××호' 싼타모 승용차(운전자 김모·73·강진군 군동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싼타모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김씨와 이모(여·70·강진군 칠량면)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김모(여·71·강진군 도암면)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날 강진읍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철도노조 안전운행 실천투쟁 용산→광주·목포행 8편 지연

철도노조의 안전운행 실천투쟁 이틀째인 9일 용산발 광주행 열차도 지연 운행되면서 열차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과 광주지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용산→광주·목포행 전체 열차 54편중 8편이 지연됐다.

이날 오전 6시5분 용산역을 출발하려던 1401호 열차가 30분 늦게 출발해 1시간11분 연착된 것을 시작으로 무궁화 4편, 새마을 2편의 화물 열차 1편, KTX 1편이 지연됐다.

앞서 8일에도 일반 열차 6편이 10~20분 가량 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광주발 용산행은 비탈, 광주지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지연되지 않았다.

열차출발이 늦어진 것은 철도노조가 운행이 예정된 열차를 서로 연결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점검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내세워 모든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운전취급규정을 보면 열차가 늦게 출발하는 경우 승객 승하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역 정차시간을 단축해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돼있으나 노조원들은 정해진 정차시간을 지켜 출발하고 각종 운전속도를 준수하면서 무리한 운전은 거부하고 있어 연착시간이 짧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긴 열차를 따라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점검하거나 점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점검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으로 사규를 약용한 태업'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



다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영 : 061) 337-0571

흠뻑 옷 인터넷서 되팔려다 달미

○흠뻑 옷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내다 팔려던 여고생이 이를 우연히 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달미.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L(여·24)씨의 2층 집에 몰래 들어가 옷과 금반지, 디지털 카메라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K(17·광주 모 고교 2년)양을 절도 혐의로 입건.

○K양은 L씨의 집 1층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부엌으로 연결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들어가 방범을 저질렀으며, 경찰조사에서 "옷을 사 입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쁜 짓을 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경찰은 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도난당한 자신의 옷과 비슷한 매물이 나왔다는 L씨의 신고를 받고 ID를 추적, K양을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주)제주무궁화관광

프라이머리 관광부담완 (여행자보험 무료여행사서비스)

제주도 여행 89,000원

카카오, 호텔, 항공권 - 1인당 89,000원 (항공료 별도) - 1인당 89,000원

목포 출발	목포부터 19,000원
고흥 출발	고흥부터 25,000원
광주 출발	광주부터 149,000원 (항공료 별도)
목포 출발	179,000원 (항공료 별도)
목포 출발	103,000원

문의: 064-744-1109

광주광역시

무보증 신용대출 1,000만원까지 가능!

※달보대출 안내

대출금	연이자율	월상환액	총상환액
1,000,000원	12%	92,000원	1,116,000원
2,000,000원	12%	184,000원	2,232,000원
3,000,000원	12%	276,000원	3,348,000원
4,000,000원	12%	368,000원	4,464,000원

※사업자 대출 안내

대출금	연이자율	월상환액	총상환액
1,000,000원	12%	92,000원	1,116,000원
2,000,000원	12%	184,000원	2,232,000원
3,000,000원	12%	276,000원	3,348,000원
4,000,000원	12%	368,000원	4,464,000원